

---

## 베네수엘라의 경제 재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레오나르도 베라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원제와 출처: Leonardo Vera, “¿Cómo explicar la catástrofe económica venezolana?”,  
*Nueva Sociedad*, No. 274, marzo-abril de 2018, pp. 83-96.

핵심어: 위기, 경제, 재분배, 원유 수입(收入),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지난 4년 동안 GDP가 40% 가량 크게 하락했다. 이 여파로 투자, 원자재, 자본재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생계유지를 위한 생필품을 찾아 헤매고 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운용 가능한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상태이며,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은 지난 4년 동안의 연간 수출액의 45%에 상당하는 외채 부담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외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두로 정부는 같은 기간 수입을 재화와 서비스 전 부문에서 약 76%까지 삭감하였다. 외환에 대한 내부 수요를 감당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2003년부터

국가가 통제해 온 엄격한 환율시스템은 붕괴되었고 2018년 9월부터는 합법적이며 공식적인 외환시장이 사라진 상태이며 환율은 사실상 비합법적 시장에 좌우되고 있다.

대외적인 부분이 베네수엘라에 산재한 문제 중 유일한 것은 아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누적된 외채 부담, 원유 수입(收入) 감소,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잠식된 비(非)원유 분야의 소득 감소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작용하며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회에서 발간하는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2017년 4사분기에 물가가 월평균 62% 상승하는 초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 물가상승의 가속화는 2012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볼리바르 혁명에 따른 각종 사회 발전 프로그램들의 일시적이고 주기적인 성과들을 완전히 종식시켰다. 2015년부터 2016년 단 2년간 천만 명이 극빈층으로 새롭게 분류되었다. 생활여건통계(Encovi)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약 80%의 가구가 극빈층에 해당하였다.<sup>1)</sup>

한참 번영하던 국가에서 인재에 의해 몰락한 사회로 변화한ダイ나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물론, 특정 경제 상황의 미래를 규정짓고 위기 발생의 발판을 제공하는 구조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높은 수입(收入) 변동성을 보이는 천연자원 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 적자재정의 누적, 경제에 있어 정부의 과도한 비중, 국제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에는 부족한 비(非)원유 민간부문의 낮은 역동성,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자국 통화화에 대한 만성적 과대평가, 생산성의 주기적 하락 등이 위기의 도래를 명백하게 반영하는 요소들이다. 그 외에, 원유 가격과 판매 수입의 급격한 하락을 위기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1) Fundación Bengoa: 《Encuesta sobre condiciones de vida Venezuela 2016》, 2016, disponible en <[www.fundacionbengoa.org/noticias/2017/encovi-2016.asp](http://www.fundacionbengoa.org/noticias/2017/encovi-2016.asp)>.

이러한 모든 요소들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베네수엘라 위기의 전개 과정에서 그 시기, 기간,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른 요인들이 필요하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의 설명 요인들은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한 접근법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이상에 사로잡힌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이질적이고 복잡다단한 경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원초적 수준의 이해에만 근거하여, 소위 ‘볼리바르 혁명’ 정부는 임의적 권력이 주도하는 분배주의 모델을 추진하고 원유를 활용했다. 하지만 바로 이 모델이 위기의 생성과 심화를 위한 조건들을 키웠다. 본고의 목적은 세 가지 차원의 위기, 즉 금융 고립과 대외적 위기, 생산성 위기, 그리고 재정 위기가 어떻게 베네수엘라 경제를 초인플레이션이라는 파괴적인 과정으로 이끌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 대외적 제약 관리

한 때는 고유가 수퍼주기 동안 호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및 원유 수입(收入)의 취약한 관리로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외환 부족 문제를 겪게 되었다. 더불어 통제된 환율시스템과 함께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輸入)과 각종 대외적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였다. 베네수엘라는 호황과 불황의 주기를 겪으면서 국가 채무 위기로 변모한 대외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고유가로 고무된 차베스 정부는 원자재 가격상승이 일어난 호황기에 국제금융시장의 대출을 적극 활용했고, 이로써 단 6년만(2006~2012년)에 베네수엘라 외채는 네 배 증가했다. 중국의 개발은행들에 대한 채무는 엄청나게 증가하였다.<sup>2)</sup> 중국 개발은행들에 대한 채무의 경우, 절반이 단기(3년 기한) 채무였고

원유 할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렇게 초단기간 집중되었던 외채는 2012년 말 이미 1,130억 달러에 이르렀다.

유가가 하락하기 전인 2012년 말에 이미 베네수엘라 경제는 심각한 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동 가능한 외환보유고는 거의 고갈된 상태였고 국제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도 상실된 상태였다.<sup>3)</sup> 중요한 두 가지 제도적 변화는 어떤 이유로 베네수엘라가 세계 원유 가격 하락의 충격을 받기도 전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두 가지 모두 차베스 대통령이 2005년 7월에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을 관할하는 법에서 추진했던 개혁과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는, 이 개혁을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상당량의 외환보유액을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환보유액이 ‘공공투자를 위한 기금(FONDEN)’으로 점차 흘러들어갔다.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약 5,35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FONDEN으로 양도했다.<sup>4)</sup> 다른 한편으로는,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원유 수출 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공식 환율에 의거하여 판매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없앴다. 그리하여 원유 판매와 관련된 외환 거래에 대한 모든 권한이 PDVSA로 이동했다. 달러의 제한적인 유입과 무제한적인 유출로 인해 유동 가능한 보유 외환은 바닥났다.

2011년부터 이미, 베네수엘라 정부와 PDVSA의 채무는 중국 개발은행들에 대한 채무를 합해 연간 1,55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섰고, 이는 수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2015년에는 베네수엘라 총 수출의 55%를 상회했다. 이렇게

2) Miguel Angel Santos: 《Venezuela: Running on Empty》 en *LasaForum* vol. xlviii No 1, 2017

3)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유동가능한 외환보유액은 2005~2011년 사이 연간 약 150억 달러에 이르던 것에서 2012년에는 연간 35억 달러로 떨어졌다.

4)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는 저자의 다음 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Venezuela 1999–2014: Macro-Policy, Oil Govern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e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57 No 3, 2015.

높은 수준의 채무는 외화 통제를 악화시키고 베네수엘라의 공공재정에도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마두로 정부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채무를 재융자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대신, 베네수엘라 경제와 사회에 매우 비싼 탈출구 전략을 선택했다. 바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이었다.<sup>5)</sup>

[표-1] 베네수엘라: 2011~2017년 주요 경제지표

| 경제지표               | 단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상품수출<br>(FOB)      | 백만달러          | 92,800  | 97,300  | 88,800  | 74,700  | 36,800   | 28,105  | 25,400   |
| 상품수입<br>(FOB)      | 백만달러          | 52,575  | 66,000  | 57,200  | 47,300  | 33,300   | 16,400  | 12,300   |
| 무역수지               | 백만달러          | 41,172  | 31,300  | 31,600  | 27,400  | 3,500    | 11,705  | 13,100   |
| 경상수지               | 백만달러          | 16,342  | 2,600   | 4,600   | 4,900   | (16,100) | (3,900) | 7,000    |
| 대외공채               | 백만달러          | 103,100 | 113,100 | 112,100 | 117,200 | 120,200  | 138,800 | 137,500  |
| 외채 서비스             | 백만달러          | 15,500  | 13,300  | 17,250  | 19,975  | 19,650   | 12,500  | 11,032   |
| 수출 대비 채무<br>서비스 비율 | %             | 16.7    | 13.7    | 19.4    | 26.7    | 53.4     | 44.5    | 43.4     |
| 공공부문 재정<br>적자/GDP  | %             | -11.6   | -17.0   | -15.3   | -9.0    | -14.1    | -23.7   | -21.2    |
| 실질 GDP 성장률         | %             | 4.2     | 5.6     | 1.3     | -3.9    | -6.2     | -16.5   | -12.9    |
| 물가상승률              | %             | 26.1    | 20.1    | 40.6    | 62.2    | 121.7    | 299.4   | 738      |
| 본원통화 증가율           | %             | 50.6    | 55.3    | 65.8    | 70.4    | 111.2    | 236.0   | 1,638.4  |
| 암시장 환율             | 달러 대비<br>볼리바르 | 9.1     | 13.0    | 36.3    | 95.3    | 550.6    | 1,452.8 | 27,962.4 |
| 실질거래 환율<br>변동율     | %             | 17.5    | 43.3    | 179.5   | 162.2   | 478.0    | 163.9   | 1,824.7  |
| 외환보유액              | 백만달러          | 9,900   | 9,900   | 6,000   | 7,300   | 6,300    | 4,200   | 2,300    |

\*추정치

출처: BCV, Credit Suisse-Emerging Markets Quarterly, Torino Capital LLC-Venezuela Red Book, *Dolar Today*.

예전에는 고유가로 말미암아 베네수엘라의 1인당 소비와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수입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세 배 증가하였다. 완제품 및 중간재 수입의 현격한 증가는 공식적인 명목 환율에 고정되어 있는 환율정책에 의해 촉진되었다. 결국 물가상승률은 고정환율에 의해 억제될 수 없었고, 오히려 볼리바르화의 명백한 과대평가를 초래했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 베네수엘라 제품의 경쟁력을 잃게 했다. 반면, 마두로 정부에게 증가하던 수입을 억제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였는데, 이는 2003년부터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위한 외환 배분이 정부의 엄격한 외환 정책을 통해 관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처음 수입이 대폭 감소한 시기는 2012년 말에서 2013년까지다.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수입액이 13% 떨어졌다. 2014년, 2015년, 2016년 수입 감소율은 각각 17%, 30%, 51%이었다. 2017년에는 25% 정도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2년 수입액은 660억 달러였으나 2017년에는 123억 달러로 하락했다. 이러한 잔인한 수입조정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효과는 가히 파괴적이었다. 생산요소, 원자재, 부품, 자본재 없이 국가 생산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14년 상반기 원유 가격은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였으나, 같은 시기 베네수엘라 GDP는 1사분기 5.2%, 2사분기 5.4%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GDP 누적 하락률은 39.5%로 추정되며, 이는 1980년대 후반 전쟁을 겪은 중미국가 니카라과의 GDP 하락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다. 당초 중간 투입재의 부족으로 발생한 병목현상으로 인해 공급측면의 요인으로 유발되었던 생산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로

5) 물론 마두로 정부는 문제 타결을 위한 다른 방안들도 시도했다. 예를 들어, 금 보유고와 15억 달러 스왑, 18.8억 달러 상당의 IMF 특별인출(SDR), 도미니카 공화국과 자마이카에 대해 채무 할인(35억 달러)을 통한 자금 선회수, 미국 국영회사인 Cirgo의 부동산 채무 할인(25억 달러), 그러나 이러한 금융공학적 조치들은 아무런 효과를 낳지 못했다.

파괴된 소비와 실질 임금의 폭락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엄청난 수입 감소는 식료품, 의약품과 같은 생필품 부족현상을 야기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 따르면, 식량부족지수는 2014년 3월에 29.5%에 달했다.<sup>6)</sup> 이때부터 이 지수에 대한 공식수치 발표는 중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공식 채널을 통한 외환 결제가 줄어드는 만큼 비공식 시장에서의 외환에 대한 수요와 압력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속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63%의 연간 환율 변동율로 시작하여, 2017년 병행(실질거래) 환율은 1,825%라는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다른 유사한 대외 위기 상황에서의와 마찬가지로, 외환 시장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병행 시장(불법시장이지만 더욱 확장하는 시장)에서 달러화 시세는 이 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가격이자 수입 완제품이나 수입부품을 사용한 재화의 가격지표가 되었다.

## 생산적 경제의 통제

베네수엘라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 역량은 수입 원자재 및 자본재 부족과 환율정책의 부적절한 설계로 인해 이미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볼리바르 혁명의 일환인 사회주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생산 수단의 몰수와 규제를 통한 말살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우고 차베스는 이미 첫 번째 재임 기간부터(1999~2006) 도전적인 담론, 자의적 수단과 긴급포고권(decretismo)을 바탕으로 민간부문과의 관계를 구축

6) 전국보건기구(Médicos por la Salud)는 4년 연속으로 발표된 연구인 '병원 국가통계(La Encuesta Nacional de Hospitales 2017) 보고서에서 2017년 3월 외과 의료 용품 공급의 75%가 부족하였고 공공센터 내 총체적인 약품 부족이 78%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기 시작했다. 반면, 국가 자본과 관련해서 정부는 생산 부문의 요구에 둔감하고, 부동산, 사법 보장, 민간 주도 사업의 수익성에 매우 위협이 되는 개혁 의제의 입안자로서 비취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갈등의 여지가 커지면서 상호간 부정적인 인식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의회가 부여한 특별 권한을 행사하여 글로벌 개혁 아젠다에 따라 2001년 11월 원유 부문부터 조세에 이르는 다방면에 걸쳐 49건의 새로운 법안 개혁을 단행했다. 특히 금융기관과 토지 소유 및 사용을 통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차베스가 연임되면서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21세기의 사회주의’라는 자신의 이상론에서 공언했듯이, 차베스는 국가의 생산 부문에 대한 소유와 통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2007-2013년 사이 이른바 “국가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통해 차베스와 기획부 장관인 호르헤 히오르다니(Jorge Giordani)는 국가 경제에서 전략적으로 고려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국유화를 시도했다.

2007년부터 정부는 통신과 전기, 철강, 시멘트, 채광 산업들을 장악하면서 해당 조치들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세계 최대 원유 매장지역인 오리노코(Orinoco) 유전 벨트의 외국 기업들은 소수의 협력파트너로 남기 위해 착취 계획에 대한 소유와 통제의 새로운 조건과 과세 방식을 수용할 것을 강요당했다. 엑손-모빌(Exxon-Mobil)과 코노코-빌립스(Conoco-Phillips) 같은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중재가 있었다.

2007년과 2009년 사이 약 233억 7,700만 달러가 물수 및 국유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때마침 뜻밖의 고유가 호황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국유화와 물수는 호텔, 은행, 유리 및 비료 공장, 자동차 유회제 회사, 알루미늄, 판지, 철물 용기 공장, 식품 체인, 슈퍼마켓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물수된 총 1,167개 회사 가운데 256개 회사가 식

품 부문에 해당되었다. 추가적으로, 식량안보와 주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2007년부터 약 3백만 헥타르의 경작지가 몰수되었다. 몰수된 경작지는 정부의 농식품 보장 계획에 따라 결정된 품목의 생산에 기여이 응한 소규모 지역단체들에게 상당 부분 배분되었다.

기업 자산과 사유지의 광적인 인수로 말미암아 베네수엘라의 국가 부채가 발생되었고, 더욱이 지출이 발생했을 때 소비된 자원들이 생산적인 재생산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 하에 진행된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험의 대부분은 큰 실패로 끝났다. 철강, 시멘트, 채광 산업은 오늘날 사실상 마비 상태다. 전기 및 통신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 부족과 사용료 조정의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이다. 식료품 부문에서는 국유화된 농업 관련 기업들 상당수가 현재 폐업을 했고, 사탕수수 공장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최소한의 상태로 운영되는 정도다.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농식품 위기에 대해 알레한드로 구티에레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농업 생산에서 얻은 최악의 결과는, 낮은 수익성, 가격 규제로 인한 투자 부재, 불확실성, 통제, 법적 불안정 등에 따른 투자 부족, 그리고 사유 재산권에 대한 경시 등으로 설명된다.<sup>7)</sup>

수백 개의 기업과 농경지의 통제와 소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민간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민간 부문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늘어갈수록 마비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2014년 1월 행정명령에 의해 ‘사회경제적 권익 수호를 위한 공정 가격 및 국가 감독을 위한 구성법(SUNDDE)’을

7) A. Gutiérrez: 《Venezuela y su crisis agroalimentaria》, Documento de Trabajo No 1, Centro de Investigaciones Agroalimentarias Edgar Abreu Olivo, Universidad de los Andes, 2016, p. 8.

제정했다. 마두로 정부는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여 만성화된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와 재화 부족을 막으려 했다. 마두로 정부는 차베스 정부 1기부터 이미 존재하던 가격 규제에 대한 통제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수익률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또한 특히, 민감한 재화에 대한 생산, 재고, 유통에 대해 보다 엄격한 통제를 가했다.

당연히 정부의 통제는 인플레이션을 멈추지 못했고, 오히려 품귀현상이 심화하였고, 비용은 폭등하여, 기업 수익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사실상, 공정 가격법에 따른 통제 시스템은 기업의 실패와, 살아남은 업체의 경우, 저생산을 낳았을 뿐 아니라 암시장과 밀매를 조장하고 품귀 현상을 공고화하였다. 기업들이 사라지는 것과 더불어 생산 사슬은 끊어졌다. 심하게 왜곡된 가격과 비용 구조 하에서 시장과 가격은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과 투자를 분배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요컨대, 4년간의 심각한 불황 이후 베네수엘라의 생산 잠재력 상실은 외화 배급과 자국 통화를 과대평가한, 낙관적이고 눈 먼 환율정책에 의한 경쟁력 상실로 설명된다. 국유화와 물수를 통한 생산 수단의 명백한 통제 정책은 심한 병목 현상을 야기했으며, 수많은 생산 사슬을 끊어뜨린 한편, 가격 통제, 이윤, 생산, 유통, 재고에 관한 정책들은 재화 품귀와 투자 부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 새로운 재정 및 통화 제도

원유 및 광물자원 경제의 저조한 실적을 설명하는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제도적 틀이 결정적인 요인이며, 천연자원의 저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유 및 광물자원 수출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수입(收入)에 의존함에 따라 국내 조세의 필요성은 낮아지며, 이는 정부수입의

관리에 있어 책임감과 효율성을 떨어지게 한다. 한편, 국내 조세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면 가격 변동으로 인해 원유 수출로부터 오는 수입(收入)이 하락하는 경우, 재원 동원을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출처에 의존하게 마련이다.

볼리바르 혁명의 열기 속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새롭게 도입된 재정 및 통화 제도의 특이한 점은 PDVSA와 원유 판매수입에 대한 계획된 통제 전략이며, 이는 차베스 정부와 그의 정치 프로젝트가 정당성을 얻기 위함이었다. 차베스는 PDVSA의 회장을 자신의 정치적 계획과 연루된 사람으로 임명하고 이사회에 개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석유 산업의 통제를 구체화하려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매우 다른 가치관에 기반을 둔 구조와 관료주의에 맞서 고군부투를 했고, 결정적으로 행정부와 PDVSA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한 후에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관리자와 기술관료들을 구조조정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새로운 법들을 통해 석유 산업과 PDVSA를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그 기업을 특별징수가 가능한 개발 대행업체로 변질시켰다. PDVSA를 통제 하에 둔 차베스 행정부는 몇 년 간의 호황기 동안 두 건의 대규모 공공 예산을 처리했다. 하나는 국회에 매년 제출하는 공식 예산과 다른 하나는 PDVSA에 대한 특별징수인데, 이로써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절대적 자유재량을 지니게 되었다. 행정부는 대부분의 원유 수입을 전용하는 일련의 관행과 메커니즘을 개발했다.<sup>8)</sup> 국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원유 수입에 대한 과세수준은 매년 과소추정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메커니즘은 부분적으로는 원유 수입에 힘입은 국가개발기금(Fonden)의 창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용된 우회 수입은 PDVSA를 통해 행정부가 공공투자 프로그램을 부양하거나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임의적

8) Pedro L. Rodríguez, José R. Morales y Francisco J. Monaldi: 《Direct Distribution of Oil Revenues in Venezuela: A Viable Alternative?》, Working Paper No 306,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12.

으로 사용되었다. 저자는 다른 연구에서 2003~2011년 사이 그 규모가 1,2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평균적으로 이는 연간 GDP의 5.8%에 해당한다.<sup>9)</sup>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고 PDVSA의 채무 누적이 심화하면서 심각한 금융 문제가 국영석유회사와 국가 재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내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정환율정책은 PDVSA의 볼리바르화 소득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지출 규모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출은 증가하고 수익은 정체되는 가운데 PDVSA의 현금 적자는 증가했다. 채무가 누적되고 그에 대한 지불 시한이 임박하자 국영석유회사의 적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2009년에 단행된 중앙은행법에 대한 부분적인 개혁은, 그 당시 처음으로 PDVSA를 포함한 공공기관들과 공기업들에게 무제한적 자금조달을 허용하면서 문제를 악화시켰다. 자금조달은, 비록 작은 규모지만, 2010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2013년 말까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보유한 PDVSA 약속어음은 이미 4,110억 볼리바르(당시의 공식 환율에 따르면 652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정도로 통화 당국에 대한 압박은 커져갔다. 2014년 4사분기에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정부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되고 경기 침체는 깊어졌으며, 조세 잠식은 뚜렷해졌다. 축소된 원유 수입과 더불어, 불충분한 국내 조세수입, 국제금융시장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화폐를 발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자금 출처를 찾지 못했다. 낮은 수준의 재정 및 금융 제도가 차베스주의/마두로주의의 후견주의적 정책을 어떻게든 유지시켜 주는 듯 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인플레이션과 실질 소득의 감소 측면에서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그러한 정책들의 이득보다 훨씬 컸다.

9) L. Vera: 《La tributación en Venezuela: desafíos con sentido de equidad》, Documento de Análisis No 2/2017, Fundación Friedrich Ebert (fes), Bogotá, 11/2017

## 물락과 초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는 2017년 4사분기에 초인플레이션에 진입했으며, 이제 그 원인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대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채, 유가와 원유 수입은 국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측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환 보유고는 고갈되어 가고, 국제 시장에서는 재정적으로 고립된 상태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변동환율 하에서 수직하강 하였으며, 수입을 위해 유일하게 기능을 하는 불법적인 병행시장의 변화에 얽매어있다. 병행시장에서의 폭발적인 환율은 베네수엘라의 통화 가치를 훼손하고 신용을 악화시켰다.

다른 차원에서 보면, 베네수엘라의 실물 경제는 현재 처해있는 최악 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어떠한 동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외환 배급은 생산 부문에 있어 분명한 제어장치이며, 환율정책은 또 다른 방해물이다. 공공 부문은 경기 회복의 촉진을 위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민간 부문은 경제 파탄과 통제 하에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다. 공급 측면의 불능상태 하에서 수요 진작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어두운 거시경제 상황과 볼리바르 혁명 기간 동안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 두 배로 불어난 공적 채무와 지출에 대한 무거운 재정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방식은 볼리바르 혁명이 재정 및 통화 영역에 가한 제도적 취약성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는 공공 부문의 자원 수요에 의해 좌우되는 통화 정책이다.

정혜윤 옮김